

## 결혼이민자 영어강사에 대한 인식조사

김정렬

한국교원대학교

**Kim, Jeong-ryeol. (2012). Perceptions on the English instructors of married immigrants from ESL countries. *Modern English Education*, 13(3), 221-24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of the married immigrants from ESL countries in their English instruction by English major college students and students of life-long education instructorship. To this end, 37 English education majors and 25 life-long English instructorship trainees in C University were surveyed for the study. The perceptions of married immigrants in English instructions are analyzed according to effects and expectation of English instruction by married immigrants, perceptions of teaching situations including class method, content and hours and expected qualities of English instructors. The data was collected and analyzed in that questions of five likert scale was calculated into means and standard distribution, and multiple response questions were tabulated into frequenc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perceptions towards married immigrants' teaching of English were positive indicating above average point levels despite the overall negative perceptions toward married immigrants in the Korean society as large. (2) The survey result also shows that qualities and perceptions correspond to the previous researches done on the native English assistant teachers. It is suggested that both the rural area English education and married immigrants' lives can be improved with the English instruction of married immigrants.

[married immigrant/English instruction/결혼이민자/영어강의]

### 1. 서론

충청북도 내 다문화 가정 4,224가구 중 95%가 결혼이민자며, 그들의 60%가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이하로 가구 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법무부, 2010). 또한 결혼이민자들의 22%가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며, 직업훈련 참여의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북미, 유럽,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민자들은 특히 어학훈련에 관심이 많았다(여성가족부, 2009). 양인숙, 민무숙, 김선혜(2010)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경제 활

동 참여는 스스로의 역량 개발을 통한 시민성 확보를 촉진하며, 경제주체로서 사회와의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통합을 앞당길 수 있다고 한다.

한편 2009년 12월 기준 충청북도 내 258개의 초등학교에서는 956개의 외국어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 프로그램의 비중은 89.8%에 달한다. 이렇듯 학교 현장에서의 원어민 강사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원어민들의 시골지역 기피현상으로 충북 농산촌 지역에서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원어민 강사를 구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원어민 고용에 따른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아 농산촌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소속 원어민 강사없이 원어민 강사가 중점학교를 중심으로 인근의 여러 학교를 순회하며 수업하고 있는 실정이다(충청북도 교육청, 2009).

영어 원어민 교사 수급의 어려움때문에 농산어촌에 주로 결혼해서 와있는 영어공용어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들이 농산어촌 지역 영어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즉, 그들을 이중언어구사가 가능한 원어민 강사로 양성하여 인근 지역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농산어촌 지역에 앞으로 함께 살아갈 결혼 이민자들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자신들의 언어능력으로 일하는데 대해서 지역내 언론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김형곤, 2010; 원형관, 2012; 정유태, 2009; 정인준, 2010)

이에 본 연구는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지역 출신 결혼이민자들의 영어 강사 활동에 대하여 앞으로 같은 분야에서 일하게 될 사범대 영어교육과 학생들과 평생교육원에서 초등영어지도자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수강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들은 영어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방법을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 영어교육분야에 종사할 사람들로서 이들 예비전문가들의 결혼 이민자 영어강사 활동에 대한 인식은 학교의 정규교육과 방과후 교육의 연계성을 담보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을 성공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원어민 강사 현황 및 역할

우리 나라와 같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학습 환경에서는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하거나 사용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사 중심의 강의가 중심인 일반 교실수업 방식으로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최상희, 2011). 이러한 EFL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마련해 줄 수 있는 최선의 의사소통 기회는 원어민과의 영어 수업일 것이다.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우리나라 영어교육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미

국 평화 봉사단이 한국에 파견되어 활동하던 1966년부터 시작되었다(박소란, 2008). 이후 1990년대에 들어와 세계화, 국제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미국의 장학재단을 통하여 모집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8명을 1992년 8월 8개 중,고등학교에 배치하여 활용한 것이 효시가(김은정, 2009)된 원어민 교사 초청 제도인 EPIK(English Program in Korea)을 추진하게 되었다.

최춘옥(2005)은 영어교육, 학교교육, 학교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지원 방안 중 가장 획기적인 것은 단위학교에 원어민 교사 배치 활용사업이라고 하였다. EPIK은 1994년 7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중점 과제로 지정한 국제화 교육 추진 종합계획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총 1762명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초청하였다. 원어민 강사의 모집은 재외공관을 통한 모집,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의 자체 모집, 외국의 교육기관과의 MOU 체결, 원어민 모집 업체,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한 모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교육과학기술부(2009)에 따르면 1995년 59명에 불과했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가 2009년 9월 기준으로 7,997명이 되어 130배 이상 증가되었다. 2011년 4월 현재 전국에 EPIK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9,320명 확보하여 배치했으며 이 중 초등학교에는 5,508명이 배치되었고 원어민 기피지역 중의 하나인 충청북도에는 178명 만이 배치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6, 2012).

이러한 모집 과정을 통하여 학교에 배치된 원어민들은 정규 영어 수업, 방과 후 활동, 교사 연수 등에 다양하게 참여하게 되는데, 박약우(2006)는 원어민 교사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원어민 교사는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많은 실제적인 영어 입력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둘째, 원어민 교사는 학습자가 말할 수 있는 기회와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그들의 반응과 요구에 즉각적인 피드백과 실제적인 예시를 보여주어야 한다. 셋째, 원어민 교사는 학습자의 영어와 영어의 발음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야 한다.

영어가 외국어로 학습되고 있는 영어교육 환경에서 원어민 활용 제도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상황에서 영어에 대한 언어 입력을 늘리고 진정성이 높은 실제 언어를 접할 수 있고, 원어민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정의적 두려움을 낮추는 동시에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학습의 흥미와 동기를 높일 수 있고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강남준, 김지은, 김현숙, 박정기, 2008; 김경미, 이충현, 2005; 김혜련, 고경석, 2008; 박준연, 최희경, 최춘옥, 윤유진, 2010; 최희경, 2008).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많은 문제점들(강남준 외 3인, 2008; 민찬규, 정현성, 김경한, 2008)도 제기되고 있는데, 원어민 강사들의 지방 및 도서벽지 근무 기회와 지속적 근무 비율의 미흡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있다. 지방의 경우 수요에 비해 우수한 원어민의 공급이 부족하여 자격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보조교사를 선발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농산어촌의 경우 선발

된 원어민들이 지원을 회피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속적인 근무 비율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우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보를 위한 방안의 모색으로 박준언 외 3인(2010)은 원어민 모집대상 국가를 인도와 같은 영어 공용어권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였다. 민찬규 외 2인(2008)은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 집단에서 ESL국가 출신자를 교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농산어촌등과 같은 지역에서 원어민 강사들을 대신하여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ESL국가 출신 이주여성들을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로 양성하는 것은 이들의 취업 분야의 다각화를 높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열악한 지역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2.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식

결혼이민자들은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국 농촌지역의 성비불균형으로 노총각이 증가하고 도시빈민지역에 미혼남성이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및 상업화된 결혼 전문 업체가 이들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온 결혼형태이다. 농촌지역의 경우 한국사회 지역 간 불균형 발전 과정에서 여성의 도시이주현상이 이를 심화시키면서 농촌지역의 국제결혼이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다(박재규, 이윤애, 2005).

우리사회에서 능력 있는 결혼이민자들이 영어강사로서 교육공동체내에서 평화적으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교육공동체내의 구성원들의 인식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들에 대한 동료 구성원들의 시각이 차별적으로 형성된다면, 결혼이민자들이 영어강사로서 학교 공동체내에서 성공하기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학교 공동체내에서 다인종 다문화적 가치와 인적자원들이 서로 평화적으로 모두가 동등한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가 다문화적 가치를 지향하고 공유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우리사회가 가진 새로운 소수집단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점점 개선되고 있지만(여성가족부, 2009),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인의 태도나 자세는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증거가 여러 군데서 발견된다. 이미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79.4%), 정작 내 주변에서 아들이나 딸이 다른 인종인 아이들과 교제하고 결혼하는 것을 인정하는 비율은(62%) 뚜렷하게 낮아진다. ‘단일민족국가’라는 문화적 배타성은 엄연히 같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존과 상생 보다는 소외와 차별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는 증거이다. 하인스 워드 어머니와 백인계 혼혈인 김동광 농구감독의 인터뷰 기사들은 유

색인종 혼혈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을 드러내어 준다. 김영희씨는 주변의 혼혈아들을 냉대하고 차별하면서 하인즈 워드가 미식축구 선수로서 유명해지자 자신의 아들에게 열광하는 한국인의 이중성을 비판하였고 (나경수, 2006), 김동광씨는 한국사회에서 혼혈아도 혼혈의 등급이 있고 그에 따라서 차별을 받는다는 요지의 모순성을 지적하였다(박준형, 2006).

이들의 추측은 결혼이민가정이 겪고 있는 아픔이 되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은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사회의 차별적 인식과 언어적 폭력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오성배(2005)는 결혼이민자들의 자녀들과 본인들이 ‘깜둥이’, ‘엄마가 아프리카 사람’ 등의 놀림을 당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다문화 인식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임주용(2009)은 청소년의 다문화인식에 대해 대중매체의 경험이 많아 다문화에 대한 대중매체 경험과 다문화가정을 알고 있는지 여부, 다문화 가정의 증감에 대한 생각 간에 상관관계가 높다고 하였다. 이상길과 안지현(2007)은 다문화적 방식으로 만들어진 광고들이 오히려 기존의 인종주의를 강화하거나 한국이 중심이 된 민족주의의 정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또한 다문화적인 요소를 담아낸 광고나 방송, 프로그램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다문화는 여전히 개념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실제로 각자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실천적 행동양식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직, 간접적인 정보를 대중매체에서 얻으므로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이고 올바르게 확립하기 위해서 대중매체가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위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 많은 개선을 요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 관련 연구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반인들의 시각이 결혼이민자들의 영어강사활동에 대한 인식의 왜곡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조사의 대상을 영어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을 쌓고 영어강사의 자격을 피부색깔과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대학생들과 성인들에 한정하였다.

### 3.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영어강사 양성과정

양인숙 외 2인 (2010)의 연구 보고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도부터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언어적 자원을 활용한 특수 전문 분야 취업을 유도한 정책을 시도하였다. 총 13개국 출신 결혼이민자 70명을 대상, 서울교육대학교에서 900시간 교육을 통하여 이중언어 강사로 양성,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서울시내 70개교에 이들을 배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 사례는 다른 시·도에도 영향을 주어 경

기도와 대전, 대구광역시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실시되었다. 경기도는 이중언어강사 40명을 2009년 11월에 선발하여 경인교육대학교 한국다문화교육연구원 주관으로 900시간 양성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역시 2009년 대전대학교 평생학습원에서 500시간 교육을 이수 받은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60시간 추가 연수를 통해 이중언어강사를 양성하여 방과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2010년 9월부터 결혼이민자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하여 올해부터 학교 현장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맡도록 하였다.

이들 지역에서 실시한 결혼이민자 대상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은 인적 자원을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수하지만, 영어교육에 특화된 강사보다는 중국어, 일본어 등 주로 제 2외국어 이중언어강사로 양성되어 일선 학교로부터 수요를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양성된 이중언어강사들이 언어 지원에 전문화된 활동을 하기보다는 이주여성 상담이나 일반학생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가족 학부모 상담 등을 겸하는 등 본래의 언어 교육 목적을 상실한 경우가 많았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결혼이민자 영어강사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조사의 분석 대상이다. 다시 말해 ESL지역 출신 결혼 이민자들의 초등학교 외국어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 활동에 대한 인식과 우수한 강사의 자격 조건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하게 될 대상이다. 설문대상자의 구성은 C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재학생 37명 및 C대학교 평생교육원 초등영어지도자과정 수강생 25명으로서 구체적인 설문대상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설문대상자의 구성

	성별		연령별			
	남	여	20대	30대	40대	무응답
빈도(N)	18	44	40	16	5	1
비율(%)	29	71	64.5	25.8	8.1	1.6

표집된 조사 분석 대상의 성별은 남성이 29%, 여성이 71%였고, 연령별 분포는 20대와 30대에 집중되어 있었다(90.3%). 지역적으로는 충북지역의 대학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생과 초등영어지도자과정 수강생으로 이루어져 있고

설문분석결과 대학생들의 답변과 초등영어지도자 과정생들의 답변을 구분할 만한 요인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대상을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 2. 연구도구

ESL지역 출신 결혼 이민자들의 초등학교 영어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 활동에 대한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생각과 그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는 설문은 크게 결혼이민자 영어강사와 강사활동에 대한 인식조사와 그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한 인식조사로 구성된다. 인식조사는 다시 필요성과 효과, 수업의 형태, 분야, 시간을 알아보는 수업상황, 기대와 우려의 요인들로 묶어서 이들 요인들에 대한 문항 신뢰도를 알아보았다. 설문의 범주와 범주별 하위 내용은 표 2와 같다. 인식조사에 사용되는 설문지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표 2**  
인식 및 요구자질 조사 설문의 내용 구성

범주	요인	신뢰도	설문내용	응답유형	처리방법
결혼이민자 영어강사에 대한 인식	필요성/효과	0.718	의사소통능력 향상 기대 정도(문항 1)	5단계 평정척	기술통계
			한국인 교사의 필요성(문항 2)	5단계 평정척	기술통계
			한국인 교사와 팀티칭 수업의 효과성(문항 3)	5단계 평정척	기술통계
			사교육 감소 가능성(문항 7)	5단계 평정척	빈도분석
	수업상황(형태, 분야, 시간)	0.729	수업형태(문항 4)	순위형	기술통계
			의사소통능력 향상 분야(문항 5)	순위형	기술통계
			수업시간(문항 6)	5지 선택형	빈도분석
	기대와 우려	0.687	우려되는 점(문항 8)	순위형	기술통계
			기대되는 점(문항 9)	순위형	기술통계
	결혼이민자 영어강사의 자질	자질	0.738	갖추어야 할 자질(문항 10)	5단계 평정척
훌륭한 자질을 갖추기 위한 노력(문항 11)				개방형	질적분석

결혼 이민자 영어강사에 대한 인식에 문항의 기대와 효과에 대한 요인에는 언어능력, 한국인 교사의 필요성, 팀티칭의 효과, 사교육감소효과 등으로 5단계 평정척으로 다루었고 이들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0.718로 비교적 높았다. 수업상황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수업시 필요한 수업의 형태, 수업내용과 수업시 수와 같은 수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5단계 평정척으로 구성하였고 이들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0.729로 신뢰할 만하다. 결혼이민자 영어강사의 인식에 관

한 마지막 요인으로 구성된 문항은 영어강사 투입시에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을 순위형 설문으로 제시하였고 신뢰도 계수는 0.687로 비교적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영어강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에 대한 조사항목은 갖추어야 할 자질은 5단계 평정적으로 구성하였고 신뢰도 계수는 0.738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훌륭한 자질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개방형으로 구성하여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인식조사 설문지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해 설문 문항의 형태에 따라 5단계 평정적 문항은 응답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기술하고 해석하였고, 순위형 문항은 순위 순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그리고 개방형 설문은 질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 VI. 연구 결과 및 논의

연구결과는 사회전체적으로 우려되는 결혼이민자와 결혼이민자가 이룬 다문화가정에 대한 왜곡된 시선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 예비종사자들이 ESL지역 출신 결혼이민자들의 영어강사활동에 대한 인식은 주로 전문적인 영어교사의 자질과 관련된 설문들이 많아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의견과는 많이 달랐다. 인식조사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결과의 사실적 내용을 근거로 몇 가지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였다.

### 1. 결혼이민자 영어강사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결혼이민자 영어강사와 함께 하는 영어 수업에 대한 의사소통능력 향상 기대 정도, 한국인 선생님의 필요성, 한국인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는 수업의 기대 효과성, 사교육 감소 가능성으로 구성된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문항, 수업형태, 향상이 기대되는 분야, 수업시간 등으로 구성된 수업상황에 대한 문항 그리고 우려되는 점, 기대되는 점의 순서로 설문대상자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 1)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인식

먼저 결혼이민자들의 영어강사 투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문항은 전체 응답자 62명 중 문항에 따라서 61명이나 62명이 답했으며 단지 한국인 선생님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한 사람의 응답자가 답을 하지 않았다.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문항은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대한 기대 정도, 한국인 선생님의 필요성, 한국인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는 팀티칭의 기대효과, 사교육 감소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들 각각의 문항을 표 3과 같이 5단계 평정적을 5점 만점으로 변환하여 평균과 설문대상자의 분포를 표준편차로 살펴보았다.



표 3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인식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의사소통능력 향상 기대 정도	62	3.93	0.623
한국인 선생님의 필요성	61	3.93	0.834
한국인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는 수업의 기대 효과성	62	3.90	0.843
사교육 감소 가능성	62	3.27	1.073

의사소통능력 향상 기대 정도에 대한 설문결과 응답은 5점 만점에 3.93점의 평균을 기록했다. 이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결혼이민자 영어강사와 함께하는 영어 수업에서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설문대상자들의 응답에 대한 표준편차도 0.623으로 의견일치도가 아주 높았다. 따라서 응답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결혼이민자 영어강사와의 수업이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결혼이민자 영어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한국인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결과 응답은 5점 만점에 3.93점의 평균을 기록했고 표준편차도 0.834로 1미만이어서 일치도가 높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외국인 선생님과 수업에서 한국인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결혼이민자 영어강사와 한국인 선생님이 함께 진행하는 영어수업의 기대 효과성에 대한 응답은 5점 만점에 3.90점의 평균값을 보였다. 설문대상자의 분포를 나타내는 표준편차도 0.843으로 의견일치도가 높았다. 이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외국인 선생님과 한국인 선생님이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영어 공부에 더 도움이 된다고 기대함을 의미한다.

학교에서 결혼이민자 영어강사와의 수업을 통하여 사교육이 감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는 5점 만점에 3.27점의 평균을 기록했다. 설문 응답자의 답변의 분포도 1.073으로 비교적 넓은 분포를 보이면서 의견일치도가 낮았다. 이는 사교육 감소 가능성이 평균적으로 보통임을 의미하지만 의견이 사교육이 감소될 수 있다는 측과 사교육이 감소되지 않으리라는 측으로 나뉘어 있다. 사교육이 감소되리라는 측은 대체로 결혼이민자들이 영어강사로 활동하는 지역들이 농산어촌으로서 사교육의 형태가 학습자나 보습학원과 같은 제한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결혼이민자 영어강사들이 상대적 우월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영어교육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므로써 사교육 감소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이다. 사교육이 감소되지 않으리라고 주장하는 측은 사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인 영어교육의 효과성보다는 다른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월성을 확보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지더라도 학부모의 생각

이 바뀌지 않고서는 사교육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결혼이민자가 영어 강사로 투입되더라도 그 지역의 사교육은 여전히 현재와 비슷한 정도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 2) 수업상황에 대한 인식

결혼이민자 영어강사가 영어 수업을 한다면 수업의 형태, 내용 그리고 수업 시수와 관련된 수업상황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수업상황에 대한 인식조사는 조사의 내용과 설문 형식이 서로 상이한 경우가 많아서 각각의 문항을 따로 제시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수업의 형태는 순위형으로 다중응답분석을 통해서 빈도분석으로 처리하여 표 4와 같이 나타내었다.

표 4  
수업형태

	결혼이민자 영어강사 주도, 한국인 선생님 보조	결혼이민자 영어강사 혼자	한국인 교사 주도, 결혼이민자 영어강사 보조	공동 역할 분담	상황에 따라 역할 분담
빈도 (N)	26	4	12	7	13
비율 (%)	41.9	6.5	19.4	11.3	21.0

결혼이민자 영어강사와 함께하는 영어 수업 형태에 대한 설문결과 41.9%의 응답자가 결혼이민자 영어강사가 주도하고 한국인 선생님이 도와주는 형태의 수업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상황에 따라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은 21.0%였으며, 한국인 선생님이 주도하고 결혼이민자 영어강사가 도와주는 형태의 수업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19.4%로 그 뒤를 이었다. 결혼이민자 영어강사가 주도하고 한국인 교사가 도와주는 형태를 한국인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보다 상당한 차이를 두고 선호하는 이유는 정규수업에서는 한국인교사의 주도로 원어민 보조교사의 수업에 조력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에 방과후 수업을 염두에 두고 답한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방과후 영어수업이 대체로 교육과정과의 연계없이 수준별로 무학년제 내지는 2개 학년을 섞어서 수준별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에는 무학년제로 학생들을 선호하는 언어기능별로 분산해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무래도 다음 설문에서 답한 영어강사의 수업분야가 듣기와 말하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답변으로 보인다.

수업의 상황에 대한 인식의 첫 번째 문항이 수업의 형태와 관련된 문항이라면 두 번째 문항은 수업의 내용과 관련된 문항이다. 결혼이민자 영어강사가 교단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업내용과 관련된 요소에는 언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4기능과 문법, 어휘, 발음의 3요소 그리고 영어권 문화를 기본으로 하고 이에 더해 외국인과의 수업경험을 통해서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정의적 요인을 고려하였다. 이들 9가지 수업내용을 설문응답자들이 1-9까지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순위형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를 역배점 방식으로 하여 1순위를 9점 만점으로 하고 9순위를 1점으로 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표 5와 같이 수업내용의 우선순위로 제시하였다.

표 5  
수업 내용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말하기	62	5.74	3.482
듣기	62	5.90	3.176
읽기	62	4.93	2.985
쓰기	62	4.70	2.795
문법	62	4.93	2.591
어휘	62	4.72	1.917
발음	62	5.29	1.702
영어권문화	62	4.79	1.856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 제거	62	4.11	1.765

결혼이민자 영어강사와 함께하는 영어 수업에서 가장 향상될 수 있는 언어 기능에 대한 순위형 설문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듣기, 말하기, 발음을 내용으로 하는 분야를 결혼이민자 영어강사가 맡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문자 언어 기능보다는 음성 언어 기능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상대적인 설문응답자들의 응답일치도가 발음은 상당히 높는데 반해서 말하기와 듣기는 표준편차가 각각 3.482와 3.176으로 의견이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그 동안의 의사소통식 영어교육과 임용시험에서 영어능력을 상당한 비중으로 다루어 왔기 때문에 생긴 영어 말하기와 듣기에 대한 상대적인 자신감으로 인하여 결혼이민자 영어강사보다는 영어 듣기와 말하기를 한국인 교사가 더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업상황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마지막 문항으로 수업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수업시간은 정규영어수업, 방과후 영어수업, 재량 영어수업, 기타교과목 시간과 그 외의 의견으로 나누어서 설문응답자들이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빈도 분석하여 표 6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6  
수업시간

	정규 영어수업 시간	방과후 영어수업 시간	재량 영어수업 시간	기타 교과목 수업시간	그 외 의견
빈도(N)	28	21	13	0	0
비율(%)	45.2	33.9	21.0	0	0

결혼이민자 영어강사와 함께 수업하고 싶은 시간에 대한 설문 결과 45.2%의 응답자들이 정규 영어수업 시간이 좋다는 의견이었다. 이는 한국인 교사들이 주로 정규수업을 의무적으로 맡고 방과후 수업은 선택적으로 맡아서 지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국인교사들이 결혼이민자 영어강사의 방과후 수업참여에 부정적인 의견이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주로 정규수업시간에 함께 영어를 지도하거나(45.2%) 방과후 영어수업 시간에 함께 가르치겠다는 33.9%로 결혼이민자 영어강사가 가르치는 수업시간은 정규 영어수업과 방과후 영어수업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밖에 재량 영어수업 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21.0%를 차지하였으나 다른 수업시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수의 인원이 응답하였다.

### 3) 기대와 우려

결혼 이민자 영어강사가 학생들의 영어교육을 맡을 때에 우려되는 점과 기대되는 점들을 각각 6개 문항과 9개의 문항을 주고 설문대상자들이 순서대로 번호를 적도록 하였다. 이들 문항들은 역배점 방식으로 1번으로 선택된 항목에 대하여 우려되는 점은 6점, 기대되는 점은 9점 만점을 주었다. 그리고 우려되는 점에서 6번으로 답한 항목과 기대되는 점에 9번으로 답한 항목에 대하여는 1점으로 선택하였다.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우려되는 점은 6점 만점으로 평균과 분포를 표준편차로 산출하여 각 항목별로 표 7과 같이 제시하였고, 기대되는 점은 9점 만점으로 평균과 분포를 표준편차로 각 항목별로 표 8과 같이 나타내었다.

표 7  
우려되는 점(6점)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선생님의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59	4.66	1.226
시끄럽고 산만해서 집중이 어려울 것 같다	58	4.70	1.242
잘 하는 학생들 몇 명을 중심으로 수업을 할 것 같다	58	3.96	1.462

선생님 출신 지역 특유의 강한 억양과 발음으로 학생들의 이해가 어려울 것 같다	56	4.00	1.293
잘 모르겠다	55	1.98	1.209
오히려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것 같다.	55	1.65	0.517

결혼이민자 영어강사와의 수업에서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평균 4.0 이상되는 비교적 상위 문항은 평균 4.70으로 수업 시간이 시끄럽고 산만해져 집중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과 평균 4.66을 얻은 선생님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의견과 평균 4.00을 얻은 선생님 출신 지역 특유의 강한 억양과 발음으로 학생들의 이해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종복, 이지현, 전영주(2011)에서 이루어진 원어민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원어민이 진행하는 영어수업의 기본적인 우려사항인 교사와 학생의 소통언어의 부재로 인한 학생들이 교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우려와 이로 인해서 우리 학습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수업대상 학생들의 산만함과 수업집중에 대한 어려움을 본 연구의 설문대상자들도 공통적인 우려사항으로 지적하였다. 여기에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결혼이민자 출신 지역 특유의 강한 억양과 발음에 대한 우려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8  
기대되는 점(9점)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영어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고 관심이 커질 것이다	60	7.68	2.396
영어 듣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60	6.78	2.336
자유롭게 영어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59	6.57	2.222
영어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59	6.16	2.773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력이 증가할 것이다	58	6.51	2.798
영어실력(정확한 발음과 다양한 단어 학습 등)이 향상될 것이다	58	5.13	2.543
훌륭한 영어 대화 파트너로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58	5.05	2.611
영어표현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을 실감나게 배울 것이다	58	3.77	2.271
챗트, 노래, 게임 등을 더 재미있게 배울 것이다	58	3.81	2.632
스토리텔링이나 역할극 등을 더 재미있게 배울 것이다	58	3.62	2.833

결혼이민자 영어강사와의 수업에서 기대되는 점에 대한 순위형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6점 이상의 상대적으로 우위의 답변항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영어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고 관심이 커질 것이라는 응답이 제일 많은 7.68이었고, 영어 듣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6.78)과 자유롭게 영어로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6.57),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6.51)과 영어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느낄 것이라는 의견(6.16)이 그 뒤를 이었다. 학생들이 느끼는 정의적 영역에서 영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동기와 흥미의 증진에 결혼이민자 영어강사가 도움이 되리라는 것과 인지적으로 듣기와 말하기에 도움이 되고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이해력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은 원어민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행해진 이종복 외 2인(2011)과 크게 다르지 않다.

## 2. 결혼이민자 영어강사의 자질

결혼이민자 영어강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그러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에 대해 설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알아보았다. 결혼이민자 영어강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한 설문은 그 동안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자질(김정렬, 2011)과 영어교사가 갖추어야 할 일반적 자질(고경석 외 14인, 2008)에서 언급된 사항들을 16개의 문항으로 정리하고 이들 문항에 대하여 필요한 정도로 5단계 평정적으로 답을 하도록 설문대상자에게 요구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각 문항별로 5점 만점으로 한 평균과 응답자들의 분포를 표준편차를 표 9와 같이 나타내었다.

**표 9**  
갖추어야 할 자질

내용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62	3.40	1.137
학생들의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 과정을 이해하여야 한다	62	4.54	0.618
다양한 교수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62	4.62	0.519
학생들의 다양한 영어 수준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62	4.53	0.694
멀티미디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60	4.03	0.780
필요시 새로운 수업 자료들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62	4.16	0.853
학생들에게 발화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야 한다	62	4.58	0.588
적절한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한다	62	4.56	0.590
영어교육에 대한 애정과 열성이 있어야 한다	62	4.82	0.385
출신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62	4.50	0.593
한국인 영어교사와 협력적이어야 한다	61	4.47	0.673

수업 활동 지시를 명료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60	4.23	0.673
학생들에게 흥미와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60	4.60	0.558
한국의 영어교육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62	4.19	0.806
선생님의 표준 영어 사용 능력이 중요하다	60	4.46	0.724
영어나 그 외의 교과목의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62	3.61	1.061

설문의 결과를 살펴보면 일단 결혼이민자 영어강사들의 교사자격증과 같은 외연적인 자격이나 우리말을 알아야 한다는 설문에는 평균적으로 보통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답한 사람들의 분포는 각각 1.061과 1.137로 비교적 긍정과 부정으로 분포 범위가 넓게 퍼져있고 의견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평균 4.5 이상으로 기대되는 자질로 많은 사람들이 높은 점수를 준 항목들을 살펴보면 영어교육에 대한 애정과 열성(4.82), 다양한 교수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4.62), 학생들에게 흥미와 동기를 부여(4.60), 학생들에게 발화기회를 많이 제공할 것(4.58), 적절한 피드백의 제공(4.56), 학습자들의 학습과정에 대한 이해(4.54), 학생들의 다양한 영어수준에 대한 이해(4.53)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견에 대한 일치도를 표준편차로 살펴보면 영어교육에 대한 애정과 열성에 대한 기대는 0.385로 설문대상자의 대부분이 강하게 기대되는 항목으로 답했다. 다양한 교수방법을 활용할 것을 기대하는 의견도 0.519로 의견 일치도가 상당히 높은 항목이었고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부여해주길 기대하는 의견도 표준편차 0.558로 비교적 일치도가 높았다. 그리고 나머지 문항들의 분포도 학생들에게 발화기회를 많이 제공할 것(0.588), 적절한 피드백의 제공(0.590), 학습자들의 학습과정에 대한 이해(0.618), 학생들의 다양한 영어수준에 대한 이해(0.694)와 같이 비교적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그리고 기대되는 정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다시 말해 평균이 낮으면 낮을수록 표준편차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서 평균 4.5 이상의 문항들에 대한 답변 일치도는 상대적으로 아주 높았다.

사실 기대되는 항목들 중에서 높은 점수를 차지한 것은 영어교사의 자질 중 기본적 자질에 해당되는 것들이었다. 영어교사로서의 기본적인 태도에 해당하는 영어교육에 대한 애정과 열성에 더해서 다양한 교수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했다. 그리고 영어교사로서 학생들을 잘 이해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학생들에게 흥미와 동기를 부여, 학습자들의 학습과정에 대한 이해, 학생들의 다양한 영어수준에 대한 이해에 대한 기대감이 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부분은 이종복 외 2인(2011)에서 언급한 원어민 교사들이 한국인 학습자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부족하다는 설문내용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결혼이민자 영어강사에게 강조해서 알려줘야 될 사항이다. 그리고 학생들과 영어수업 시간에 상호작용할 때에 기대되는 자질과 학생들에게 발화기회를 많이 제공할 것, 적절한 피드백의 제공으로서 영어교사로서 학생들의 영어에 성실하게 답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해석된다.

설문 중 가장 마지막 질문은 결혼이민자 영어강사가 영어 교사로서 훌륭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점에 대한 의견을 묻는 개방형 질문이었다. 이에 대한 응답을 몇 가지 의견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먼저 학습자를 잘 이해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할 것과 수준의 차이와 같은 영어 교육 현실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대답이 많았다. 또한 교사가 스스로의 능력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 자신만의 교수법을 가져야 하며, 동료교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있고, 그들의 수준을 파악하여 가르치려는 열정이 있어야 하며, 나아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개방형 설문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기대되는 자질을 갖도록 노력해달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ESL출신 결혼이민자들의 영어강사 활동에 대한 사범대 영어교육과 학생 및 평생교육원에서 초등영어지도자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수강생들의 인식과 강사의 자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문화 가정이나 자녀 그리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설문조사와 인식연구는 있지만 결혼이민자 영어강사에 대한 인식조사는 아직까지 없었다. 영어강사에 대한 인식조사는 영어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영어교육을 알고 앞으로 영어교육 분야에 종사하게 될 교사지망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결과를 종합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결혼이민자와 그 가정에 대한 편협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ESL지역 출신 결혼이민자들의 영어강사 활동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었다. 설문 응답자들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결혼이민자 영어강사와의 영어 수업을 통하여 듣기, 말하기를 중심으로 한 구어 영어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될 것이고 자유롭게 영어로 말하고 들을 수 있으며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져 보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어수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자칫 산만하고 시끄러운 분위기로 집중이 어렵거나 선생님의 강한 억양과 특유의 발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이는 한국인 선생님과의 팀티칭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한 걸음 나아가 적극적으로 보면 국제어로서 영어가 다문화간 의사소통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결혼이민자 영어강사의 영어 억양도 배우고 이해해야 될 대상이지 배격해야 될 영어는 아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영어강사 스스로가 한국 교육과정과 영어 교육 현실에 대해 이해하고, 학생들의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그들의 흥미와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을 개발하고 노력하면서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 간다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농산어촌 지역에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학교와 직장을 필요로 하는 능력있는 사람들이 있다. 영어를 잘하는 영어강사를 학교에서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결혼이민자들은 직장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집안 경제를 남편의 넉넉치 않은 수입에 의존하면서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 ESL지역 출신 결혼이민자들이 인근 학교에서 영어강사로 활동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느끼고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여유 있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결과가 ESL지역 출신 결혼이민자들이 영어 강사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효과적인 강사양성과정을 계획하는 데에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남준, 김지은, 김현숙, 박정기. (2008). 경기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실태 분석 및 효율화 방안. 수원: 경기도교육청.
- 고경석, 김정렬, 이성원, 최성희, 김진완, 윤현숙, 조정순, 정숙경, 표경현, 신상근, 김해동, 류호열, 이재영, 김영미, 김정태. (2008). 2009학년도 중등영어교사 임용시험 개선 연구 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교육과학기술부. (2006). 국민의 영어역량 제고를 위한 영어교육 혁신방안. 교육과학기술부 정책 참고자료집.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선발지원 개선 방안.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2).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통계자료.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김경미, 이충현. (2005). 영어 협동 수업이 초등학생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효율적인 협동 수업의 방향. *초등영어교육*, 11(2), 133-171.
- 김은정. (2009).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활용 실태와 개선 방안.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전주.
- 김정렬. (2011).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도 제고 방안. *초등영어교육*, 17(3), 7-31.
- 김형근. (2010). 강원도 다문화 가정의 취업 실태. 강원도민일보, 2010년 1월 7일자. 춘천: 강원도청.
- 김혜련, 고경석. (2008). 초등학교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실태: 경기도를 중심으로. *초등영어교육*, 14(2), 23-43.
- 나경수. (2006). 하인즈 워드와 그 어머니. 문화일보 2006년 4월 8일자. 서울: 문화일보사.
- 민찬규, 정현성, 김경한. (2008).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대 및 관리체제 확충 방안.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박소란. (2008). 원어민 교사에 대한 한국인 영어교사와 학생들의 태도 연구. 미

- 출간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인천.
- 박약우. (2006).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교사의 역할.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회보*, 20, 5-10.
- 박재규, 이윤애. (2005). 전라북도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전북: 전북발전연구원.
- 박준언, 최희경, 최춘옥, 윤희진. (2010).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선발 및 관리 지원 현황과 개선방안. *외국어교육*, 17(2), 229-255.
- 박준형. (2006). 김동광감독 인터뷰. 매일경제신문 2006년 4월 12일자.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 법무부. (2010).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월드와이드웹: [http://www.moj.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7&strWrtNo=57&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6070&strAllOrgYn=N&strThisPage=3&strFilePath=](http://www.moj.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7&strWrtNo=57&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6070&strAllOrgYn=N&strThisPage=3&strFilePath=)에서 2012년 4월 1일에 검색.
- 양인숙, 민무숙, 김선훈. (2010).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IV)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사업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2009).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 오성배. (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원형관. (2012). 지역 결혼이민자 영어 가르칠 수 있다. 경기도정신문, 2012년 6월 1일자. 수원: 경기도청.
- 이상길, 안지현. (2007). 다문화주의와 미디어 문화연구: 국내 연구 동향의 검토와 새로운 전망의 모색. *다문화 사회 한국 사회과학의 과제 심포지움 자료*, 115-121.
- 이종복, 이지현, 전영주. (2011). 원어민 영어교사의 협력수업 효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조사. *영어교과교육*, 10(3), 213-232.
- 임주용. (2009). 청소년의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효능감.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정인준. (2010). 울산지역의 결혼 이주여성 이렇게 활용하자. 울산제일일보, 2010년 3월 4일자. 울산: 울산제일일보사.
- 정유태. (2009). 우리지역의 오늘. GBS광양방송, 2009년 8월 10일자. 광양: 광양방송국
- 최상희. (2011).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의 자격분석 -서울시 교육청 중심으로-.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충북.
- 최춘옥. (2005). 영어교육내실화를 위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도 제고 방안. *서울교육*, 19, 114-121.
- 최희경. (2008).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에 대한 초등영어교육 현장의 목소리: 현황과 개선 방안 탐구. *외국어교육*, 15(1), 333-362.
- 충청북도 교육청. (2009). 교육통계자료. 충북: 충청북도 교육청.

## 부록

## 결혼이민자 영어강사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조사

1. 결혼이민자 영어강사와의 수업이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결혼이민자 영어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한국인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결혼이민자 영어강사와 한국인 선생님이 함께 진행하는 영어 수업이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결혼이민자 영어강사와 함께하는 영어 수업 형태는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결혼이민자 영어강사가 주도가 되고 한국인 선생님이 도와주는 수업  
② 결혼이민자 영어강사 혼자서 하는 수업  
③ 한국인 선생님이 주도가 되고 결혼이민자 영어강사가 도와주는 수업  
④ 공동 역할 분담  
⑤ 상황에 따라 역할 분담
5. 결혼이민자 영어강사와의 수업에서 가장 향상될 수 있는 순서대로 번호를 써 주십시오.  
(가장 향상 1 → 9)  
말하기( ) 듣기( ) 읽기( ) 쓰기( ) 문법( ) 어휘( ) 발음( )  
영어권문화( )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 제거( )
6. 결혼이민자 영어강사와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면 언제 영어 수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규 영어수업 시간 ② 방과 후 영어 수업 시간 ③ 재량 영어 시간  
④ 기타 교과목 수업시간 ⑤ 그 외 의견 ( )
7. 학교에서 결혼이민자 영어강사와의 수업을 통하여 사교육이 감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8. 결혼이민자 영어강사와의 수업에서 우려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우려되는 점부터 번호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 1 → 6)

- ① 선생님의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
  - ② 시끄럽고 산만해서 집중이 어려울 것 같다( )
  - ③ 잘 하는 학생들 몇 명을 중심으로 수업을 할 것 같다( )
  - ④ 선생님 출신 지역 특유의 강한 억양과 발음으로 학생들의 이해가 어려울 것 같다( )
  - ⑤ 잘 모르겠다( )
  - ⑥ 오히려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것 같다( )
- 그 외 의견을 적어주세요( )

9. 결혼이민자 영어강사와의 수업에서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부터 번호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점 1 → 10)

- ① 영어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고 관심이 커질 것이다( )
  - ② 영어 듣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
  - ③ 자유롭게 영어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
  - ④ 영어 공부에 더 필요하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
  - ⑤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력이 증가할 것이다( )
  - ⑥ 영어실력(정확한 발음과 다양한 단어 학습)이 향상될 것이다( )
  - ⑦ 훌륭한 영어 대화 파트너로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 ⑧ 영어표현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을 실감나게 배울 것이다( )
  - ⑨ 챗트, 노래, 게임 등을 더 재미있게 배울 것이다( )
  - ⑩ 스토리텔링이나 역할극 등을 더 재미있게 배울 것이다( )
- 그 외 의견을 적어주세요( )

10. 결혼이민자 영어강사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각 문항을 읽고 그 정도를 표시해 주세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내용	정도				
	①	②	③	④	⑤
1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2 학생들의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 과정을 이해하여야 한다					
3 다양한 교수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학생들의 다양한 영어 수준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5 멀티미디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필요시 새로운 수업 자료들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7	학생들에게 발화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야 한다
8	적절한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한다
9	영어교육에 대한 애정과 열성이 있어야 한다
10	출신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11	한국인 영어교사와 협력적이어야 한다
12	수업 활동 지시를 명료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13	학생들에게 흥미와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14	한국의 영어교육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15	선생님의 표준 영어 사용 능력이 중요하다
16	영어나 그 외의 교과목의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11. 원어민과 영어 공용어 지역 출신 외국인 선생님이 영어 교사로서의 훌륭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Elementary**

김정렬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363-791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산 7

Tel: (043) 230-3537

Email: jrkim@knue.ac.kr

Received 6 June 2012

Revised 11 August 2012

Accepted 20 August 2012